

건축문화 **사랑**

Vol.061 10, December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12 061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선택 2015!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후보자 (관련 지면 6면~7면)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1
 기호
강석후
 수림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2
 기호
김영수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3
 기호
이창섭
 (주)유비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4
 기호
정태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5
 기호
조총기
 건축사사무소 간향

인터뷰_사람&issue

전남/대진 건축사사무소 김 정 건축사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부싷돌” _ 안용훈

시론 02

2014년이 남긴 과제는 “안전불감증” _ 정명철

작품소개 03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효덕동 주민센터 _ 안길전

설계경기 04

서림마을 행복주택 최우수작 / KTX 광주역 행복주택 최우수작

사람 & issue 05

꾸준한 배움과 익힘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건축사! _ 김 정

기획광고 06-07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후보자

기고 & NEWS 08

도시재생선진지 답사기 /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014. 11. 4 ~ 9) 이모저모

NEWS 09~11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 밤샘 금지의 이유 / 전북건축사회, '2014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부문 은상_ 효덕동 주민센터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천혜경로원 봉사활동” 나서



2014년이 남긴 과제는 “안전불감증”



정명철 건축사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부회장

‘안전의식의 생활화’의 실마리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는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안전사고 1건이 일어날 때, 이미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약 300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계로 통해 증명한 법칙이다. 즉, 사고를 예고하는 징후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책을 세운다면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아마도 그 징후들을 무시하거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안전불감증’ 일 것이고, 그 조그마한 변화마저도 예의 주시하거나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의 생활화’ 일 것이다.

2014년, 甲午年은 역동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청마의 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던져진 화두는 ‘전미개오(轉迷開悟)’였다.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속임과 거짓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진실을 깨닫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실천하지도 못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연이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아린 감정을 추스르느라 여념이 없었고,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였으며,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허망하고 안타까웠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지난 1년은, 유난히 많은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혹은 감정적으로 무척이나 힘겨운 한 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더 많은 상처를 남겼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실종자 수색작업도 중단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치유와 희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형식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책으로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해서도 아니 된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가!

안전불감증의 만연과 반복되는 안전의식의 망각은 건축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대형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개발과 경제성에 치중해 나며 그 동안에는 안전문제를 등한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금년에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되어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4년도에 이슈가 되었던 사고만 보더라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아산의 오피스텔 붕괴, 장성의 요양원 화재사고, 해운대의 오피스텔 붕괴, 판교의 환풍구 사고, 담양의 펜션 화재사고 등이 있었다. 물론 나열되지 않은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도 부지기수이다. 여기에 과거의 사고들까지 덧붙인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형용하기조차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로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의 수준은 후진성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생활화는 크게 건축물이 축조되는 과정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건축물이 축조되는 과정에서의 안전은 주로 건축업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은 건축주 혹은 관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건축사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축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축물이 사용되는 과정을 거쳐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유일한 전문가가 건축사이기 때문이다. 구조적 안전과 사용상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하는 업무, 시공과정에서 안정적

인 품질확보와 함께 건설안전까지 지도해야 하는 공사감리업무, 준공 이후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업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철거 및 멸실에 대한 업무 등이 건축사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에 있어서 건축사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안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이 때, 건축사는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하며, 어떻게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인가? ‘교양으로 읽는 건축’이란 책을 보면, 건설 및 건축 산업들이 모두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건축가도 사업가로 불리게 된다고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회사, 국민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성에 맹목적인 관점을 둔 건물만이 가득해 진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한 비판과 더불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물은 돈이 되는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축이란 분야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얼굴 같은 것이고, 건축주와 사용자들이 모두 안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미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지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그러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역할과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왜곡되기까지는 건축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의식주는 삶의 필수요건이고, 그 중에서도 주거의 기능은 건축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공급하는 건축사는 진정한 수요자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소통해 왔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혹여 건축주와 관리자 혹은 시공자 등의 입장만을 대변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필수요건인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자문자답도 해보아야 한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신뢰를 쌓거나 자정의 노력을 해왔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위법과 편법 및 불합리한 요구 등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고민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선도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확한 판단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의 생활화’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다.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에 대해 자책도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다짐도 했었다.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이 각인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되었다. ☐

2014 Architect's Dream Solution

정보캐드, 건축설계 환경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정보캐드를 통해 설계업무 과정에서 경험했던 비효율적인 작업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창조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미래의 설계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세요.

미래의 설계환경에 건축사님을 초대합니다.

10월	11월	12월
진주 10/14 (화)	부산 11/4 (화)	춘천 12/2 (화)
구미 10/16 (목)	대전 11/6 (목)	서울(강남) 12/4 (목)
서울(강북) 10/21 (화)	울산 11/11 (화)	순천 12/9 (화)
수원 10/22 (수)	청주 11/13 (목)	아산 12/11 (목)
일산 10/28 (화)	광주 11/18 (화)	인천 12/16 (화)
	전주 11/20 (목)	제주 12/18 (목)
	김해 11/25 (화)	
	대구 11/27 (목)	

행사 참가 신청

www.midasArchi.com/seminar

행사 관련 문의

광주·전남 서영창 010.8896.1248 / syc0517@midasit.com
전북 조솔아미 010.6691.9282 / csam0602@midasit.com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작품공모를 실시하고 비주거부분 금, 은, 동상 3개 작품과 주거부분 1개 작품을 선정 발표하였다. 작품심사위원은 대학교수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었다.

효덕동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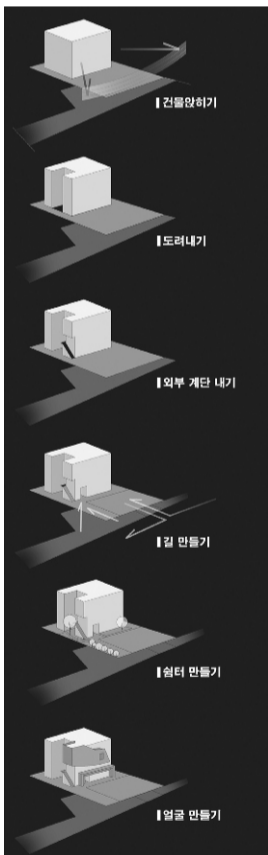
안길전 건축사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부분 은 상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00-1번지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대지면적 : 1,045㎡
 건축면적 : 404.39㎡
 연 면 적 : 1,169.46㎡
 건 폐 율 : 38.70%
 용 적 륜 : 111.91%
 규 모 : 지상3층, 최고높이 14.45m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고밀도목재패널, 외단열시스템
 승 강 기 : 15인승(장애인용)1대
 주 차 : 13대(장애인주차1대, 경차1대포함)



- 건물양하기
 - 가로 축에 대응하여 남측에 최대한 넓게 배치
 - 정면성 및 인자성 확보
 - 도로 쪽으로 열리고 받아들이는 배치
- 도려내기
 - 원활한 채광과 환기 도모
 - 각종 발코니 설치하여 휴게 공간 확보
 -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완충 및 매개공간 조성(포켓 정원 등)
- 외부계단내기
 - 각종 기능에 따른 동선 분리 (동사무소, 주민 센터, 예비군 동대)
 - 프로그램 실 운영 등 접근성이 용이
 - 대규모 행사시 외부 공간으로 활용 가능
- 길 만들기
 - 보행자 및 차량 동선 분리
 - 인접한 학교 출입구와 연계, 보행자의 동선 확보
- 심터 만들기
 - 각종 기능과 연계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 얼굴 만들기
 - 역동적이며, 경쾌한 흡입력 있는 정면 만들기



앞으로의 금융 신협

신협이 있어 오늘도 방긋!

행복한 내일을 위한 신협의 대출서비스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대폭상향
신용대출 최고 7,000만원

아파트 담보대출
연 3.8%

신용 대출
신용등급별

부동산 담보대출
연 4.3%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T. 062-527-8890~1

꾸준한 배움과 익힘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건축사! _ 전남 목포지역 김 정 건축사와의 만남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김 정 건축사는 일반적인 건축사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다.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자주 놓쳐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많아, 적지 않은 나이에 기회가 생길 때 놓치지 않고 그 배움을 익히며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는 김 정 건축사는 항상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 작품에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한다.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 야경투시도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입문, 학업 등)

예나 지금이나 저희 집 뒤에 뒷동산이 있습니다. 개구리 바위라는 별명으로 성인 4명 정도가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평상처럼 생긴 바위인데 어릴 적에 그 곳에서 친구와 돌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연히 도시 전체가 네모진 성냥갑을 연상케 하는 획일화된 동네를 바라보며, 친구에게 주택의 형태를 바꾸고 싶다는 막연한 포부를 밝히면서 건축을 향한 꿈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직업이 제가 희망하는 일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교수님의 안내와 조언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건축사가 되었고, 현재는 조그마한 단독 사무실을 운영하며 '견마지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자주 놓쳐 아쉬움이 많았는데, 목포과학대학에서 감사하게도 출강의 기회를 주셔서 지식 같은 학생들과 같이 건축에 대해 공부하며 지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에 대해

어떠한 형태 또는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가 연출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의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움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 꾸준한 배움과 익힘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철학과 신념으로 설계하신 대표작품이 있다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저의 신념을 추구한 설계 작품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을 꼽는다면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선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축인생 동안 저의 건축 철학을 완벽히 반영하여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건축사를 신뢰하는 건축주를 만나서 저의 의지와 사상을 건축물에 반영해서 준공된 건축물을 볼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손잡고 같이 방문하여 아빠의 작품이라며 건축물의 설계과정을 설명해주고 건축물 관련자와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반면에 경제 논리에 밀려 설계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시에는 과감히 업무 수행 중단을 선언하지 못하고 준공까지 끌려가야 할 때가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건축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학시절에 그 상상 속의 작품을 전 사회에서 발견했습니다. 김중업 건축사님 작품이었습니다. 이후 학창시절부터 존경하게 되었고, 작품세계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상상해왔던 건축물을 꼭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난이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여건이 난해한 현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현장관계자들을 다른 현장에서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면 반가움과 더불어 그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하며 웃을 수 있고, 또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곤 합니다. 그처럼 앙숙적인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는 인연이 쌓여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배님들이야 후배로서 존경하며 예의를 갖추어서 모시는 것이 후배 건축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후배 건축사들에게는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해서 건축사의 지위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기의 건축관을 실현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만 넘겨 준 것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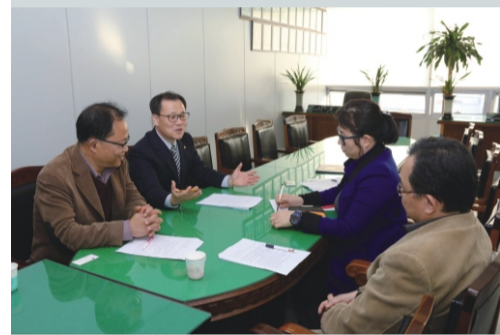
기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포부

전남건축사회 임원인 한사람으로서 모든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가는 것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회원들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소통하여 선·후배, 동료 건축사님들의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에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후배 건축사님, 신진 건축사님들이 경제 논리에 밀려 본인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작품설계가 좌절되지 않고 실현해가는 안정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김미영 건축사 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남/대진 건축사사무소 김 정 건축사



▲ 지난 11월 27일 전라남도건축사회 사무국에서 진행된 인터뷰



▲ 기청부주중학교



▲ 세한대 당진기숙사 정면



▲ 영산기독교순교체험관 조감도

김 정 건축사가 건축 설계한 대표작품들



▲ 우진아파트 투시도



▲ 월출산학사수련관



▲ 중앙병원 기숙사

선택 2015! 대한건축사협회

선거일시 : 2015년 1월 20일 (화) 09시 ~ 2015년 1월 21일 (수) 18시 / 선거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1
기호
강석후
수림 건축사사무소

강석후가 하면 '공약' 아닌 '실천'입니다!

■ 주요경력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수료
- 소규모건축물 설계감리분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 대통령 산업포장(제6272호)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기호 1번 강석후의 약속

1. 상주감리 대상 규모(5,000㎡) 미만의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분리 법제화.
 2. 건축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증서의 무발행을 임의발행으로 개정. (2014.10.27. 현재 회원사 공제 사고 발생률 0.25%)
 3.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업무 공영제 추진 및 대가기준 현실화 점검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4. 협회 조직의 슬림화와 전문화를 통해 대정부 법제제도 개선에 집중.
 5.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5년간 60시간에서 40시간(연간 8시간) 이하로 축소 (의사 보수교육 연 8시간, 변호사 의무연수 2년간 16시간) 및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범위 확대추진.(건축관련 업체 실무 교육 및 동호회 활동 등)
 6. 대한건축사협회 부설 '건축구조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건축안전사고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대응과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및 구조계산서 작성 서비스 제공.
 7. 회원 고충에 항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고충처리 민원창구'를 온·오프 상에 개설.
 8. 모든 관공서에서 공공건축사를 의무채용하여, 모든 허가시 무자격자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인 건축사로 하여금 도서 검토 시행.
- 움직임이 필요할 때 움직이지 않는 협회는 회원의 협회가 아닙니다.
회원의 고통이 극에 치 다르고 있는데 한가하게 양해각서나 남발하는 태평성대의 때는 더욱 아닙니다.
협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권익옹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강석후가 선두에서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건축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2
기호
김영수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주요경력

- 국립철도고, 서울과기대 졸업
- 연세대(석사), 명지대(공학박사) 졸업
- 철도청, 대법원 건설관리국(건축사무관)
- 서초구 회장,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 역임
- 철도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 동문회 회장

존경하는 전국의 건축사님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축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위하여 애쓰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건축사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회원과 협회'를 위한 일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임기동안에 건축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굵은 것을 바로 잡고, 우리 협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 및 협회 임직원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와 진전은 오직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덕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동안에 건축사의 특급기술자인정, 현장조사 검사 대가기준 개정,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국토부 주관 '건축설계 산업 육성방안', '건축물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축사가 건축물의 총괄지휘자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설계 대가기준 연구와 설계 표준계약서의 개발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설계비, 감리비와 건축사 지위에 대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는 특히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이 제가 한 번 더 출마한 이유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많은 법제도 개선안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저 김영수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협회의 당당한 미래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 같이 가자고 제안 드립니다. 제대로 된 설계비! 제대로 된 감리비! 제대로 대우받는 건축사!
저 김영수와 함께 잘 사는 건축사, 영광스러운 우리협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3
기호
이창섭
(주)유빅스
종합건축사사무소

기회의 양극화가 생존의 양극화를 낳고 있습니다.

■ 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ROTC(공병장교)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연세대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수석부회장 역임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현재

본 주제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수많은 공약과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허한 구호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신념을 가지고 적지만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씩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1. 협회차원에서 전 건축사의위원 POOL제 도입하여 가능한 많은 회원에게 기회부여.
 2. 지난 2년간 지지부진한 소규모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조속한 종결과 더 나아가 소규모 사무소의 공동주택 감리업무 진입기반 확대.
 3. 영역확대 차원에서 건축사가 주관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반 서비스 일관체제 구축.
 4. 녹색건축분야의 정책협의기구에서 배제되어 있는 우리 협회의 현실정를 조속히 타개하여 향후 건축계 최대 BLUE OCEAN에서 중심적 역할 확대.
- 9개 공약 후속됨 -
문제는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14. 12.

기호 3번 이창섭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제31대 회장 후보자

투표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4
기호

정 태 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강한 조직, 밝은 미래!
불어라, 변혁의 신바람!
열어라, 회원 행복시대!**

■ 주요경력

- 부산공고, 부산공전 건축과 졸업
- 동아대학교 건축과 졸업
-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집행위원장
- 제22, 23대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 작품수상

-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대상 수상
- 건축의날 건설교통부장관표창 수상
- 건축의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
- 제2회 부산인재상 수상
- 부산다운건축상 금상2회 수상
-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수상

**미래지향적 조직운영!
작지만 강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 ▶ 협회와 시도 건축사회의 역할·책임 재정립
- ▶ 월정회비폐지·실적회비로 전환
- ▶ 건축서비스 산업연수원 설치, 건축사보 자격완화
- ▶ 책임이사제(당연직위원장)로 조직슬림화

**회원생존권 확보에 주력!
회원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 상주감리대상 외 모든 건축물 설계·감리분리 입법 및 시행
- ▶ 기획·계획설계 등록제도 시행
- ▶ 설계·감리, 유지관리·점검업무 대가 현실화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실비정액가산방식 법제화
- ▶ 현건축신고제를 건축허가제로 100% 전환
- ▶ 중소형건축물 상주감리대상 총량제(1인 5개 현장) 시행
- ▶ 건설사 설계검열 '금지'(원점화) 입법 추진

변화와 소통!

협회의 미래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 ▶ 건축서비스진흥법 현실화 추진
- ▶ 설계자감리(supervise)의 법제화 추진
- ▶ 대국민봉사를 통한 홍보 강화
- ▶ 입법활동 강화(국회와 공동연구채널 구축)
- ▶ 대정부제도 개선을 위한 회장비상집무캠프 세 증시 설치
- ▶ 시도 건축사회의 "연합회" 추진
- ▶ 등록원의 내실화 및 교육비의 "무상"화
- ▶ 회원지원실을 회장직속기구로 개편
- ▶ 축구·등산·마라톤 등 동호회의 적극적인 후원
- ▶ "연금제도" 부활
- ▶ 협동조합은 건축사직능 맞춤형 개발로 조기시행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후보

5
기호

조 충 기

건축사사무소 간향

**새로운 책임감의 시대
"회원이 협회다."**

■ 주요경력

- 전국 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 회장('13,14)
- 본회 부회장('13,14) 이사('08,09,11,12,13,14)
- 본회 법제위원장('07), 정관제규정위원장('08), 법제('04), 건축('05), 정책('06), 예산('12)위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13,14), 감사('04,05)
- 건축문화신문·건축사지 편집국장('12,13)

회원여러분,

현재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분능은 조금도 줄지 않았으며, 건축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회원여러분의 믿음과 결연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장은 결코, 회장의 자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회원이 자신과 사무소, 그리고 협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공동의 위협에 처한 이 역경의 거울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협회행동 5 목표]

- 변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1. '건축사생존권' 수호

- * 설계감리분리 '공공감리' 독립된 건축사 수행
- * 설계감리분리 '설계의도구현' 설계건축사 수행
- * 설계검열요구의 필사적 저지 및 '설계, 감리대가'에치제도 입

2.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지원

- * 발주평가기준 및 국방, 농어촌정비법등건축사배제규정개선
- * '포괄적 업무대가'에서 '행위별 업무대가' 기준으로 제도화

3. '시·도건축사회 역량' 강화

- * 지지체에 걸맞은 시·도건축사회의 협회 조직내 '법인화' 추진
- * 실무교육, 경력 및 실적인정 등 회원관련 업무의 위임, 위탁
- * 건축사실무교육의 주도 및 전문화된 집중교육 지원

4. '대한건축사협회' 혁신 및 선도적 운영

- *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협회 '세종행정국'의 설치, 운영
- * 협회 상근부회장의 대정부 및 국회 등 외부활동으로 전환
- * 본협 사무처 개혁 및 본협직원의 시도회 파견, 순환보직화

5. '회원 지원서비스' 강화

- * 협회 입회비의 저비용과 건축사교육비의 'Zero'화 추진
- * R&D투자활성화와 '종합정보센터' 및 '건축사보호원' 설립
- *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건축산업대전, 영화제 등 협회행사의 종합, 집중화 및 회원중심 저비용, 고효율행사로 전환



선거인 회원정보(예정명부) 열람, 수정 및 미납회비 납부 안내

□ 선거인 예정명부 열람, 수정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에 실시되는 정회원에 의한 협회 제31대 회장선거는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go.kr)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온라인투표는 핸드폰 또는 PC를 통해 투표를 하는 것으로서 회원여러분께서 협회에 신고하신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등)가 정확하여야 회원님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께 선거인 회원 정보(예정명부)를 열람토록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전산 등록된 선거인 회원 정보(예정명부)를 열람하시어 회원님의 회원정보(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정확인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 회원정보(예정명부) 열람, 수정하기 (클릭)

- 열람기간 : 2014년 12월말까지

- 선거인 예정명부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회원정보

- 열람, 수정방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협회업무" → "정회원관리" → "정회원관리 프로그램 실행" → "회원조회"(열람) → (수정)"회원정보" 하단 수정란 클릭 후 정보 수정

□ 미납회비 납부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협회 창립 이래 처음 실시되는 정회원에 의한 회장 직접선거가 원만히 치러지고, 회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확정('15.1월초 예정)'전까지 6개월 이상 정회원회비 미납하신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정지 처분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정회원(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정관 제55조에 따라 협회 이사회(15년 1월초 예정)의 의결을 받아 회비미납 징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하오니, 회원분들 중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미납 회비를 납부하여 회비미납으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이나 회비면제 휴업회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건축사자격등록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문의(회원정보 확인 및 회비 관련)

- 회원정보 수정 : 등록관리실 실적관리팀 박현정 대리 (02-3415-6858) / 경력관리실 정보전산팀 김갑수 과장 (02-3415-6822)

- 회비미납 확인 : 소속 시·도건축사회 회비수납 담당직원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장 강성익

도시재생선진지 답사기



안용훈 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anhun3097@korea.kr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부싷돌”

광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열기

낙엽이 흩날리는 지난 가을 11월 15일(토) 통영시와 창원시로 도시재생투어를 다녀왔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사무총장 남승진 교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투어는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5주 동안 선착순 120명을 모집하는데 시민, 학생, 건축사, 교수 등 400여 명이 신청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광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광주라는 도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건축인과 시민들이 많다는 느낌이 이 지역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흐뭇함을 느낀다.

이날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인 통영시의 동피랑 마을, 창원시의 창동예술촌 시범지구 등을 견학하면서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유지시켜나가는 유기적 생명체라는 것을 느꼈다.

주부로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시민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제인 제이콥스 여사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이라는 책에서 낡은 건물을 부수고 대형 건물을 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오히려 도시를 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직 수익성과 편의 위주의 도시 공간 재편은 도시를 ‘인간성’을 상실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녀는 도시를 생명체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도시 속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불가분의 요소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투어를 통하여 필자는 제인 제이콥스의 생각과 사상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달동네, 동피랑

동피랑 마을은 동쪽의 비탈진(비랑) 마을이란 의미로 통영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고 한다. 통영시는 도시정비를 위해 동피랑 마을을 철거하고 아파트·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푸른 통영21’이라는 시민단체가 공공미술의 가치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벽화공모전을 열었고 동피랑은 전국의 화가들과 학생, 시민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통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들이 벽화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우리가 재생투어를 갔던 날도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온 동네가 북적거리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제격인 어묵탕의 국물을 듬뿍 떠주던 ‘몽마르드’ 카페 주인아주머니의 미소와 통영 시내를 내려다보며 가을정취에 흠뻑 젖게 해준 3인조 밴드의 공연은 동피랑 뿐만 아니라 통영의 풍경이 되어 다시 통영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동피랑 마을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벽화에서는 동피랑과 통영의 뿐 만 아니라 우리 모

두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있어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그림이 없는 듯 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동피랑은 사람과 공동체를 품은, 살아 숨쉬는 마을이 되었다.

옛 영화를 되찾아 가는 창동

또 하나의 방문지인 창원시의 ‘창동예술촌’을 통해서도 21세기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창동예술촌’은 1990년대까지 마산 상권의 중심지로 서점·영화관·먹자골목 등이 모여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변화가었다고 한다. 또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아픔을 품고 있는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산시의 경기침체로 상권이 죽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도심은 급속히 공동화되어 갔다.

그러던 창동이 변화된 것은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원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을 브랜드화하여 문신골목을 조성하면서 부터이다.

직접 찾은 창동의 좁고 꾸불꾸불한 오래된 골목에는 오래된 벽돌 담벼락과 맨홀 뚜껑이 그대로 남아있어 젊은 시절 우리 도심의 옛 정취를 흠뻑 느끼게 했다. 골목 곳곳에 창동의 자랑거리인 예술가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하나씩 심어놓아 이를 발견해나가는 재미도 쏠쏠했다. 각종 공예품과 창작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구경하다 총동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지금의 창동예술촌은 지역 문화예술의 부흥과 상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반성과 희망이 교차 되었던 견학

그간 도시재생투어를 여러번 다녀왔지만 이번에 다녀온 통영 동피랑과 창원의 창동예술촌의 투어는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필자에게 많은 상념(想念)을 주고 있다.

우선, ‘도시재생=개발’이던 시절의 결과물 속에서 사는 현재의 도시민들은 과연 행복하냐는 것이다.

낡고 오래된 동네라고 하여 전부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립한 그간 우리의 도시재생의 결과는 이렇기라는 공동체를 없애버렸고 역사적 장소성도 소멸시키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 현대 도시의 모습은 각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정취와 풍경을 간직하지 못한 채 독자성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주거단지에는 네모난 상자를 끝없이 이어 놓은 것 같은 아파트 숲이 펼쳐져 있고 건물에는 크고 작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그 지방의 고유한 장소성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도시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상하는 도시의 미래를 좋은 생각들, 재미, 새로움, 낯선 장면들로 조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한 2014년 제2회 광주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에 일반시민 및 건축사, 교수, 공무원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는 경남 통영시의 동피랑 마을과 창원시의 도시재생 모범지역인 마산합포구 창동 지역을 답사했다.



▶경남 창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창원시 도시재생과 배선일 과장의 강연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조직된 개성있는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풍경을 갖게 되어 도시민들이 그 속에서 즐기고 소통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개성과 다양성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과 창원 창동 예술촌이 그러하듯 말이다.

이와 같이 자신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찾아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도시재생 선진지의 여행은 우리 건축인과 행정가, 시민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희망을 갖게 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함께 희망을 키워 나갔으면...

이번 도시재생투어를 다녀와서 많은 상념도 있지만 남다른 각오도 생긴다. 서로 얽히고 의지하고 있는 다양한 삶과 풀벌레 소리 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상상력이 도시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어떠한 작업보다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 재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후손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만들고 추억을 쌓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견학은 우리 지역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반영해야 하며, 도시로서 광주가 어떤 미래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낡고 오래된 동네마을과 골목길에 대해 추억을 품고 꿈을 꾸고 있다면, 그리고 좀 더 활기차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누리고 싶다면 도시재생 투어에 참가해 보자. 획일화된 도시 미학에 의존하지 않고,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며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광주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함께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부싷돌”이 되어보자.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014. 11. 4 ~ 9) 이모저모



지난 11월 4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제인 건축인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진 회장 직무대행



이번 건축인의 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이주현 회장, 광주일보 기현호 편집국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시상식으로 광주광역시 건축상 시상과 도시재생공모전 대상 시상, 건축공모전 대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사진은 이번 광주건축상 금상(오월어머니집)을 수상한 (주)포유 건축 박홍근 건축사 시상 사진



건축인의 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자랑스런 건축인 추대패 전달식. 올해 자랑스런 건축인에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인 이청웅 교수가 추대되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광주 동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와 더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후 첫 행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문화제 행사일환으로 개최된 해외건축가 초청강연회는 11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요코하마 시립대 구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와 스텔라 노부하루 교수가 ‘요코하마의 도시재생 현황과 광주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 문화제는 특히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에 광주지역 800여명(작년 대비 150여명 증가)의 유치원, 초·중등학생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



광주의 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시작된 건축도시문화제가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은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더욱 쉽게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별기고

※해당 원고는 본지 10월 10일자 8면에 게재된 '학생기고-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저녁 10시 이후 설계실 사용 금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 밤샘 금지의 이유

윤기병 교수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

원광대학교 건축학과는 2014년 2학기부터 설계실 밤샘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투고란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건축문화사랑에 실렸으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주체자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건축계가 당연히 여기는 밤샘이 진정 건축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 건축계는 어느 분야 못지 않게 밤샘을 통한 치열하게 활동을 하여 왔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공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개연성 또한 쉬워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전통적 의미에서 건축 설계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고 있는 이유가 외적 요인이다. 그러나 한편 밤샘을 통하여 우리는 반복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반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려고 노력을 거듭 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수요는 변화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성에 맞는 일감을 찾고 있었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변신을 게을리 하여 왔다는 자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밤샘은 세상과 벽을 쌓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행복한 건축인 양성을 위하여서이다. 건축인은 아름답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위하여 건축을 한다. 그러나 그 중심은 개개인이다. 건축이 아니다. 건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행복한 건축은 그 건축가가 행복할 때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행복한 건축은 좋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 관계를 가진 건축가의 손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찌 보면 건축 설계 이전에 프로젝트 수주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주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간미로 세상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건축가의 자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진한 건축가는 매우 진지한 평생 학습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깊은 우물을 파려면 넓게 파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건축가는 매우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 설계실만이 학습의 장이 아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학습의 장이며, 이 세상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회, 강연회, 문화 행사,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 등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설계실에서의 간접적 경험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일상적 설계 이외에 습득하는 습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상으로 나아가 좀 더 넓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이다.

우리는 시간 관리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밤샘을 하며, 오전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 중 집중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존재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시로 밤샘을 한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21세기의 좋은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 좋은 인재 없이 직업의 미래 또한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를 이해하고 따라 주는 학생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2014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지난 11월 19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진행, 전국 20여개 대학 260여 작품 출품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회장 길종원 교수)는 지난 11월 19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2014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재)국제디자인교류센터 오인욱 이사장, (사)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오영근 회장, 조선이공대학교 최영일 총장, (재)광주디자인센터 장상근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20여개 대학에서 260여점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모든 작품이 예년에 비해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심사는 3차까지 가는 엄정한 심사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됐다.

공모전 전시회는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조선이공대학 건축과 길종원 교수, 국제교류재단 광주전남지부장에 선임



조선이공대학 건축과 길종원 교수가 외교부 소속 공익사단법인 국제교류재단 광주전남지부장으로 선임됐다.

국제디자인교류재단은 외교, 문화, 디자인 분야 관련 사업과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술적 연구와 국제교류를 수행하는 공익 사단법인이다.

길종원 교수는 현재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 회장, (사)한국공간디자인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만나고, 소통하고, 배우고, 실천하자

내년 경기상황은 IMF경제위기 때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해외 경기의 침체와 국가 경쟁력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 팽창의 한계 등등. 특히 건축분야의 경기는 양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젠 질적인 변화와 잃었던 영역을 찾아서 우리의 업역을 넓히고 세분화해야 할 끝자락으로 보인다. 그 출발점은 건축인들의 단결에서 찾을 수 있다. '단결'이라하니 따분하다고 생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다.

단결의 시작은 소통에서 비롯된다. 건축전공 학생, 건축사, 건축관련 학과 교수, 건축관련 공무원 등등이 자주 만나야 한다. 공동의 사명을 논하고, 꿈을 함께 나누며,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두가 각개전투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건축인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통의 기본은 만남이다. 많은 대화다. 생존을 위한 토론이다. 토론 속에서 서로가 배움을 얻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건축사들은 사회적 기여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을, 교수들은 사회 속에서 건축의 위상과 제자들의 진로 개선을 위한 대안을, 공무원들은 건축을 기본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개선할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며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요즘의 건축주들은 건축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쏟아진다. 평생에 한번 건축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건축주들은 공부도 많이 한다. 검색을 통한 정보로 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리드할 수 있을까?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는데... 서로가 경험을 나눠야 한다.

또한 업역을 넓힐 대안을 찾고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신축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활로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장엔 건축사만의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건축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공무원 한명이 바뀌면 교수 열명 이상이 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교수 한명이 바뀌면 건축사 열명이 바뀌는 변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따라서 자주 만나 소통하고, 의제를 공유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건축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일 일은 아니다. 절반은 타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한다. 예술분야, 인문학 분야는 물론 정치·경제 분야와 시민단체 속으로도 들어가야 한다. 우리 끼리만의 만남으로는 절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주변인들 속에서 건축인의 역할을 키우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속에서 건축의 가치와 역할, 중요성을 공유하고 각인시켜야 한다. 누가 해주질 않는다. 우리 건축인들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나고, 소통하고, 배우고, 실천하자.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 aforyou@naver.com

특별기고

지금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건축학 인증을 위한 준비중...

김대운 학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지난 11월 12일, 전날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구름이 잔뜩 낀 오후 시간이었지만 삼삼오오 모인 건축학부 학생들로 인하여 순천대학교 공대 1호관 중정이 소란하다.

마른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창고에서 2002년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 학생들의 소중한 작품이 담긴 포트폴리오와 학과 자료들을 꺼내어 건축학 인증을 위한 준비를 위해 이렇게 모여있다. 학과장님이신 이동희 교수님을 필두로 하여 건축학인증이 무엇이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요구하는 SPC(학생수행평가)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당일 작업에 대한 자료정리 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해가 갈수록 건축학 인증에 대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0년간의 자료정리가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을 것이다. 건축학 인증이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로써 인증준비에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 둘 갖추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HP 렌탈서비스 AutoCad와 가장 잘 어울리는 복사기

hp M775f 컬러 A3 복합기
▶ 월 임대료가 9만원

hp 렌탈 전문점
프린터 세상
www.ahp.co.kr
T.062-676-7779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함께 한 겨울맞이 봉사활동

- 지난 12월 5일 광주 동구 학동 천혜경로원 방문, 중식제공 및 배식봉사활동 진행



추운 겨울, 광주 지역 건축사들의 따뜻한 활동들이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어 화제다.

광주건축사회는(회장 안길전) 지난 12월 5일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천혜경로원을 방문하여 겨울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사전 봉사활동 신청자 등 30여 명이 참가하여, 150여명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들에게 250만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하고 직접 배식봉사를 수행했다.

안길전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몸이 불편하고 힘든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2014년 건축문화포럼-해외건축문화탐방 진행

-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오사카, 나오시마, 고베 지역 건축문화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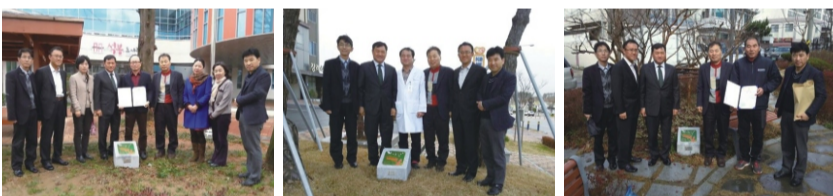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해외 건축문화 탐방단원 20여명이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나오시마, 고베지역 건축문화를 답사했다.

안길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탐방단은 참가를 신청한 일반시민과 건축 관계 공무원, 일간지 기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약 4일간 일본 오사카의 부립 아스카 박물관, 나오시마 이에 프로젝트, 고베 노노키 허브원 등 선진 건축문화지 10여 곳을 답사했다.

광주건축사회는 해외 선진 건축문화 탐방을 통한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해외 건축문화 탐방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나무심는 건축인, 2014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시상식 진행

- 지난 12월 1일, 올해 선정작 석봉도서관 등 3곳 방문하여 상장 전달과 동패 부착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무심는 건축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올해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2월 1일 진행됐다.

부문별 수상작으로 공공부문에 석봉도서관과 일반부문에 수완 KS병원, APT 부문에 봉선동 광명아파트가 선정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광주광역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전남건축사회, "2014 전남 건축인의 밤" 개최

-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호텔 목포에서 진행



전남건축인의 축제 '2014 전남 건축인의 밤'이 오는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호텔 목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연회와 전남도내 대학 건축학과 재학생 장학금 수여식, 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초청강연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 전)서울건

축사 회장 조충기 건축사가 강사로 나선다.

한편, 전남건축사회 국원식 회장은 "지나온 2014년의 일상을 정리하고, 전남 건축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며 전남 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지역 순회 토론회 시작돼

- 전라권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

대한건축사협회 31대 회장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별 토론회가 오는 12월 10일 제주권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라권은 오는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213호실에서 개최되며 토론회 참석 건축사는 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1시간이 인정(중복인정 불가)된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이에 앞선 오후 1시부터 법무법인 서석 윤춘주 변호사를 초빙하여 실무교육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역 구분 (해당 건축사회)	개 회 일 시	장 소
제 주 권 (제주)	'14. 12. 10.(수) (14:00~17:00)	제주 건축사회관 강당
전 라 권 (광주,전북,전남)	'14. 12. 12(금) (14:30~17:3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11~213호
충 청 권 (대전,충북,충남)	'14. 12. 15(월) (14:00~17:00)	(대전) 오페라웨딩 3층
경 상 권 1 (대구, 경북)	'14. 12. 22 (월) (14:00~17:00)	대구 엑스코 신관 211호
경 상 권 2 (부산, 울산, 경남)	'14. 12. 23 (화) (14:00~17:00)	(부산) 연산동 자이갤러리
서 울 권 (서울)	'15. 1. 5.(월) (14:00~17:00)	본 협회 대강당
경 기·인 천·강 원 권 (인천,경기,강원)	'15. 1. 8.(목) (14:00~17:00)	본 협회 대강당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선거 및 2015년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선거 추진일정 안내

□ 협회 정관 및 우리 시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제28회 정기총회(2015. 3. 13일)에서 제15대 회장과 2015년도 감사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울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사무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선거명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선거 및 2015년도 감사선거
2. 선거일시(예정)
2015년 3월 13일 (금)
3. 선거장소(투표소)
제28회 정기총회장(총회 장소는 별도 공지)
4. 선거권 자격(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
제6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총회 구성원을 말한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제6조에 의거 선거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 회원이 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칙 제43조(회비 미납징계)에 의거 회원 권리정지처분을 받아 선거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2014. 12. 15일(월) ~ 2014. 12. 19일(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나. 등록장소: 광주건축사회 사무국
다.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2) 입후보 소견서(A4규격용지 / 단면2매 이내) 3)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부착) 4) 서약서 [별지 서식] 5) 선거기탁금: 회장선거 기탁금 50% : 250만원, 감사선거 기탁금 50% : 50만원 *계좌번호: 신한 131-013-307505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라. 기타사항:
○ 광주건축사협회 임원선거규약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4호: 선거 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100좌(100만원)이상의 납입 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사장 입후보자는 1,500좌(1,500만원), 임원 입후보자는 500좌(500만원)의 납입 출자금을 선거공고일(15.1.25일이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예비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6. 주요 추진일정: 주요일정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전북건축사회, '2014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오는 12월 22일 오후 4시 전주 오펀스에서.. 제26대 전북건축사회회장 선거 등 열려



제26대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선거 입후보자

기호 1
전병갑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제26대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선거 입후보자

기호 2
김기수 건축사
CNS 건축사사무소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김남중)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4시에 전북 전주 오펀스에서 '2014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향후 전북건축사회 3년을 이끌 제26대 회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북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장 선거 출마자는 총 2인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에 '전병갑 건축사'와 CNS 건축사사무소 '김기수 건축사'가 입후보했다.

전병갑 건축사는 1961년 생으로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현 전주시건축사회장과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김기수 건축사는 1959년 생으로 조선이공대학교와 서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정읍시청과 전주시청 건축직 공무원을 거쳐 1995년 건축사 면허 취득 후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전주시건축사회장과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사, 전라북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의 임기는 제49회 정기총회일 이후부터 시작된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선명숙 건축사 / 해음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독립로28(백운동 624-3)
-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 이윤행 건축사 / 티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09호 (차평동, 랜드피아오피스텔)
- * 변경(소재지)**
 - 정정상 건축사 / 정상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서암대로 90번길 25(신안동)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광주 서구 금화로 59번길 12, 제1층 제102호 (금호동 진흥더루벤스 아파트 상가동)
 - 강동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움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산학협력공학관 501호
 - 조원철 건축사 / 자연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회재로 897-1 4층(금호동)
 - 유승희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4동 212호(매월동)
 - 윤정태 건축사 / (주)에이치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회재로 897-1, 4층
- * 부고**
 - 안태경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11월 12일 (수)
 - 김경우 건축사 / 은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11월 21일 (금)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진출**
 - 강선중 건축사 / (주)미추출 건축사사무소 경남(진주)진출
- * 결혼**
 - 이상돈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처녀 결혼 - 11월 15일 (토)
 - 김윤형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12월 06일 (토)
- * 부고**
 - 정창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림 빙부상 - 12월 01일 (월)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나상민 건축사 / (유)진영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5-0
 - 박재형 건축사 / (주)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2-11
- * 전임**
 - 김기중, 임경희 건축사 / (주)맥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1-5
 - 하기성 건축사 / 아키텍 건축사사무소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랑대첩로 388-43
- * 퇴회**
 - 승민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생내리 41-3
 - 오태윤 건축사 / 탑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상동 903-3
- * 변경**
 - 오규열 건축사 / (주)디아아이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배맛1길 46-0, 8층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 238번길 22-0
 - 황영호 건축사 / 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삼학로 301-1, 205호
 - 김복환 건축사 / (주)건영종합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6

News 광주·전남·전북 12월 지역축제

- ▶ 12. 11 (목) ~ 12. 14 (일)까지 2014 전주MBC 배아비페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
- ▶ 12. 12 (금) ~ 01. 25 (일)까지 보성 차밭 및 축제 전남 보성군, 봇재대원 및 다향각 전망대 일원
- ▶ 12. 31 (수) ~ 01. 01 (목)까지 여수 항일암 일출제 전남 여수시, 항일암 (임포마을) 일원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11.28. 공포 11.29시행)

1.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 분쟁전문위원회를 두며,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점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절차, 소음 차단을 위한 층간 바닥 기준의 적용 대상 건축물 구체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수선의 범위 확대,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의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세부내용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 참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2014.11.28 공포, 11.29. 시행)

1.개정이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정하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세부내용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 참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9호, 2014.11.28. 공포, 11.29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은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8호, 2014.11.28. 공포, 11.29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4. 11.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 담당임원** 정명철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서재형
- 전담기자** 광숙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 편집위원**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박주현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 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대한건축사협회장 및 16개 시·도 건축사회장 각 200,000원
- 문지훈 하나오앤씨 600,000원
- 마이디스아이티 30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표 | 지 | 설 | 명

선택 2015!

임기 3년의 대한건축사협회장을 뽑는 직접선거가 2015. 1. 20~21일 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혹독한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완생' 을 꿈꾸며

며칠 전 퇴근 중에 불알친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오늘도 야근이란다. 11월 중순부터 매일, 매주, 일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 전남 여수에 위치하고 회사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건축 자재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 녀석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물론 나에게도 부러움과 약간의 시기를 느끼게 하는 놈이다.

“그 정도 연봉을 받으니까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거지... 잔말 말고 일어나 해!” 격이 없는 친분과 평소의 시기심이 섞여 약간 매몰차고 통명스럽게 응수했다. 그래도 불알친구라고 나에게 전화해 약간의 위로를 기대한 듯 했지만 난 늘 그래왔듯 채찍질만 해댔다. “행복한 소리하지 마. 지금 취업도 못하고 밥 굶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긴 아냐? 일이 주어졌을 때 죽어라 해야 살아남지.”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엇그제까지만 해도 밤 늦게까지 함께 일하신 우리 과장님은 진급을 못하니까 희망퇴직 받아버리더라. 이렇게 매일 잘릴까 벌벌 떨며 사는데 과연 이게 행복한 소리냐? 빨리 돈 모아서 상사 얼굴에 사직서 던져버리고 내 사업이나 해야겠다.”

이 모든 대화가 과연 나와 내 친구만의 생각일까? 요즘도 그리고 예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과 직장인들 사이에 늘상 벌어지는 마음속 대화는 아닐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40년 가까이 자영업만 해온 분이시다.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인생의 리듬이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해 왔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집안이 화목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더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안의 화목도, 경제적인 여유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다행히 지금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셔서 본업에 충실하신 덕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까닭에 항상 하시는 말씀은 “주말되면 쉬고, 월급날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너희 직장인들이 제일 부럽다. 허튼 마음 먹지 말고 회사생활에 충실해라”하는 조언 아닌 조언을 꾸준히 하신다.

사업을 하고 싶다는 직장인 친구, 직장인들이 부럽다는 자영업자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건축경기 속에서 매달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를 걱정하시며 힘겹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축사님들. 또한 그 밑에서 그다지 밝지 않은 건축계의 현실 속에서도 자그마한 희망을 키우며 실력을 닦고 있는 사무소 직원들까지 각각 자신만의 고초가 있으리...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들의 치열한 삶을 잘 반영한 드라마가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 드라마 한 장면의 대사가 떠오른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그 밖은 지옥이다” 회사가 전쟁터든 그 밖이 지옥이든 우리에게 힘들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미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완생'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화령을 넘는다

서로에게 몸 기댄 산과 산 사이

몸 낮춘 구름바다

영겁의 업 실타래처럼 풀어 숲을 감싼다

산의 긴 한숨처럼, 찰나

출렁대기 시작하는 구름바다

파랑 위에 관음조들이 올라앉아

전생의 말들을 지저귐다

기억을 더듬어 내린 간이역에서

바람먼지로 이뤄진 몸뚱이는

다시 먼지바람이 되고자

산에 몸 기댄다

구름 바다 출렁출렁

그때처럼, 이화령 넘는다

박 종 선

전남 목포시 용당동

책 소개

「목포 옛 길을 찾아서」

류용철 작가 젊은 느티나무 펴냄(2009년)



대한제국은 1897년 목포를 개항했다. 개항을 앞두고 러시아를 비롯한 일본, 미국, 청, 영국 등

서양 열강들이 조선침탈을 해왔다. 이와 함께 목포는 인천, 부산, 원산 등에 이어 진남포, 마산 등과 함께 개항을 맞으면서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갔다.

조선시대 목포에는 만호진이 설치되어 있었다. 세종 때 만호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성종, 연산군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 설치를 위한 성곽이 세워졌다. 이것이 목포진이다.

일본인 마에마 교사쿠가 개항에 대한 필요성을 위해 올린 조사서에 따르면, 목포는 개항당시 목포진 성을 중심으로 24~25호가 밀집해 있었으며 거주자는 600여명에 달했다. 러·일 전쟁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목포를 선점하기 위해 다툼을 벌였다. 러시아 군함의 고하도 매입을 위한 목포부사 납치사건과 러시아산 매입 등은 당시 열강의 침탈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 거류민단이 현 목포역 인근에 매립을 통해 조성됐다. 대부분 일본인이 거주했으며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총칼로 탄압하는 기관이 이곳에 자리했다.

현재 만호, 유달, 경동 등에 일본식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돈을 모은 조선인들이 생기면서 부촌이 형성됐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부호마을은 북교동, 남교동 등에 남아있다. 이곳에서 움튼 목포문화는 고스란히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20~30년대에는 목포의 인구가 급격이 늘면서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졌다. 1900년대 초 조선인들이 깃털 등에 집을 짓고 삶으로써 자연스럽게 간척과 매립이 이루어졌으며, 매립은 목포 도시형성의 역사가 됐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집, 공장 등 각종 시설물을 남겨 놓고 쫓겨나면

서 이것들을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바꾸면서 무분별한 마을이 형성됐다.

목포는 일제 강점기 때 쌀, 목화, 소금 등의 수출항으로 국가 산업의 맥을 유지하다가 일본 패망과 함께 교역이 끊어지면서 산업은 침체하게 되며, 더욱이 60~70년대 산업화에서도 배제되면서 정체된 도시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서민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골목길이다. 매일 쏟아지는 싸움 등은 서민의 아련한 아픔이면서도 도시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골목길이 사라지고 있다. 골목길은 우리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골목길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건축사 만평



Rubber Duck의 Message!

평화와 행복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비교하려 살지 마세요!
그래야
“행복해 집니다”

심상봉 건축사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다그룹

건축사 Photo



순천만 낙조 해를 삼킨 산... 붉게 물든 순천만에 취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여행에서 좋은 친구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 순간을 머리와 가슴에 담아본다.

박주현 건축사작 휴엔 건축사사무소(광주)